

독자님의 소중한 의견이 더 나은 산업보건을 만듭니다

월간 <K-산업보건>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K-산업보건>을 읽은 소감과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참여 방법

스마트폰 QR코드 인식 후 의견 남기기



참여 기간

2024년 4월 20일까지

당첨 선물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총 10명)



3월호 독자평

이주노동자의 죽음. 현장에서 굶은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기준도 충족되지 않는 거주환경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슈된 산업보건 사례를 정리해 주시면 보건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박정필

‘콘크리트 양생 작업 일산화탄소 중독’ 편을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양생 작업 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작업 전, 작업 후 주의사항을 꼭 지키는 습관을 길러 안전하게 작업 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애독자 김형철

최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호에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테마 칼럼을 읽으며 다시금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비투비 보건관리자 황송희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노동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를 통해 산재와 공상 처리가 헛갈리는 게 많았는데 명쾌한 해답으로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국내 현장의 산재처리 사례와 공상 처리 사례에 관한 내용도 실린다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보건관리자 김보은